

제 2 회

儒學大學

순성놀이



일시 : 2015.10.31.(토) 09시 30분

장소 : 성균관대학교 인근 순성놀이코스

(퇴계인문관~와룡공원~숙정문~백악마루~창의문)

제1회 유학대학 순성놀이(2015. 05. 10)



유학대학 순성놀이 연혁

제1회 순성놀이(2015.05.10.(일))

구 간 :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참석인원 : 100여명(유학동양학과, 유학과, 한국철학과, 동양철학과, 유학대학원)

제2회 순성놀이(2015.10.31.(토))

구 간 :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2회 순성놀이 일정

- 09:30 집결(퇴계인문관 3층 중앙정원)
- 09:50 출발
- 12:30 식사(부암동)
- 15:00 해산

서울 한양도성 전도

인왕산 구간 : 도의문 터~창의문 [4km, 2시간 30분 소요]

백악 구간 : 창의문 ~ 해화문 [4.7km, 3시간 소요]



인문관 중앙정원



숙정문 肅靖門

儒學大學

순성놀이 코스



창의문 彰義門



1.21사태 소나무



순성놀이의 개요



서울 한양도성

한양도성은 조선왕조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태조 5년(1396), 백악(북악산)·낙타(낙산)·목멱(남산)·인왕의 내사산 능선을 따라 축조한 이후 여러 차례 개축하였다. 평균 높이 약 5~8m, 전체 길이 약 18.6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1396~1910, 514년) 도성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양도성에는 4대문과 4소문을 두었다. 4대문은 흥인지문·돈의문·송례문·숙정문이며, 4소문은 해화문·소의문·광희문·창의문이다. 이 중 돈의문과 소의문은 멸실되었다. 또한 도성 밖으로 물길을 잇기 위해 흥인지문 주변에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을 두었다.

순성놀이

먼 곳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에게 한양도성은 반가움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몇날 며칠을 걸어서 온 이들이었으니 먼발치에서 한양도성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드디어 한양이구나' 싶은 안도감이 생겼을 것이다. 특히 과거시험을 보러 상경하는 선비들의 경우, 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밤낮으로 책을 읽었으니 한양도성의 의미가 남다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과거 보러 온 선비들 중에는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돌며 급제를 비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도성민들에게도 전해져 '순성놀이'라는 놀이가 생겼다. 정조 때 학자인 유득공은 『경도잡지京都雜誌』에서 순성놀이를 "도성을 한 바퀴 빙 돌아서 안팎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의 아들인 유본예(1777~1842)도 『한경지략漢京識略』에서 "봄여름이면 한양 사람들은 짝을 지어 성 둘레를 한 바퀴 돌며 안팎의 경치를 구경한다"고 적었다.

서울시 『한양도성가이드북』

성북동 너머의 명소들



북한산北漢山은 한양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우리가 걷는 성곽구간은 북한산 자락에 있는 북악산北岳山에 해당한다. 사진에 보이는 곳은 보현봉普賢峯(714m)으로 북한산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비봉, 석가봉, 문수봉과 함께 북한산 남쪽 지역의 주봉을 형성하고 있다. 보현이라는 명칭은 불교의 보현보살普賢菩薩에서 왔다. 본래 사찰의 불상배치에 있어 석가모니불과 문수좌, 보현보살右는 하나의 세트를 이룬다. 문수보살은 부처의 지덕智德과 체덕體德을, 보현보살은 이덕理德과 정덕定德, 행덕行德을 맡는다. 이들 봉우리를 그렇게 이름붙인 것은 웅장한 산악의 자연미에서 부처의 세 모습을 보고자 하는 염원 때문이다.

길상사吉祥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삼각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고급요정 '대원각'을 운영하던 김영한(법명 길상화)이 대원각을 송광사에 시주하여 탄생하였다. 1995년 6월 13일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의 말사인 '대법사'로 등록하였으며 1997년에 길상사로 사찰명을 바꾸어 창건하였다. 사찰 내의 일부 건물은 개보수하였으나 대부분의 건물은 대원각 시절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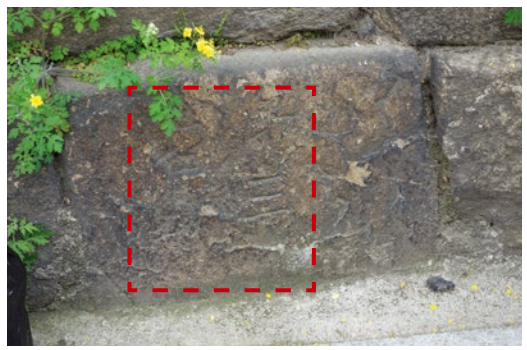


삼청각三淸閣은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전통 문화공연장이다. 1970년대 요정정치의 산실이었던 이곳은 1972년에 건립되어 남북회담, 한일회담, 여야 정치인 협상 등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 이후 점차 손님이 줄어들어, 1999년 12월에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 2000년에는 서울시 문화시설로 지정되었고, 2001년에 공연장과 한식당, 찻집 등이 들어선 6채의 한옥으로 구성된 전통문화공연장으로 재개장하였다. 삼청각의 운영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세종문화회관이 맡고 있다



각자성석刻字城石

글자가 새겨진 성돌이라는 뜻으로 성곽을 정비할 때 구간을 구분하고 그곳의 명칭과 책임군현(조선초기)을 적거나 혹은 감독관과 책임기술자의 이름, 날짜 등(조선후기)을 적었다. 주로 낙산 구간 끝부분인 동대문성곽공원 근처에 몰려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도 예리한 방문객의 시선을 기다리며 숨어 있기도 하다.



서울성곽의 기본구조

서울성곽은 기본적으로 네모반듯한 돌로 죽 늘어 쌓은 체성體城과 그 위에 몸을 숨기면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든 성가퀴 또는 여장女牆으로 구성된다. 이 여장은 다시 위에 지붕처럼 엮은 옥개석屋蓋石과 여장 안에 사격을 목적으로 한 총안銃眼으로 이루어진다. 총안은 밖에서 보았을 때 정사각형 모양으로 된 원총안遠銃眼과 직사각형 모양의 근총안近銃眼으로 구분된다.

찾아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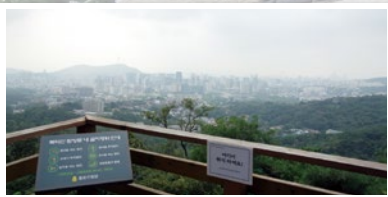
외룡공원 암문(←말바위 | 해화문→)



말바위 가는 이정표



말바위안내소(※신분증 지참)



말바위안내소 정경(도심방향)

숙정문 구간은 군사구역이므로 개인 및 단체는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소정의 서식을 갖춰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신분확인 뒤 입장번호가 적힌 표찰과 함께 신분증을 돌려준다. 표찰은 나중에 나오는 곳에서 반납하면 된다.

외룡공원 → 말바위안내소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1시간 30~50분 소요)



인근의 가볼만한 곳



숙정문肅靖門은 조선시대 4대문 중 하나로 본래 개국 초에 숙청문肅淸門으로 불렸다. 현재의 명칭은 조선시대에 이문이 북정문北靖門과 혼용되면서 숙정문肅靖門이라는 이름으로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 1413년 태종 때에 풍수에 근거한 최양선의 건의로 숙정문과 창의문은 문은 있지만 열지는 않고 늘 폐쇄되어 있었다. 물론 이 방향에서 음기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가뭄이 들 때에는 종종 이 문을 열고 송례문을 닫아 관악산의 화기가 도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음의 기운만 들어오게 하여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북쪽의 음기가 들어와 부녀자들이 음란해진다고 여겨서 문을 닫아 걸었다고도 전한다. 현재 현판의 글씨는故 박정희前 대통령이 쓴 것이다. 다른 대문과 문의 성격도 달랐기 때문에 숙정문의 성문을 들어서면 바로 윗 천장에는 별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해화문의 경우에는 봉황이 그려져 있다.) 또한 현재와는 달리 본래 누각 없이 문만 나 있는 암문暗門이었다고 한다.

大統領暗殺목적 앵무峰·碑峰거처 洗劍亭에

生捕간첩記者會見
21일 밤 서울 시내에 침입했다. 생포된 북괴부장간첩 김신조(27·북괴인민군소위) 북괴 제124군부대(당 22일 저녁 육군방천부대에 서 내외기자들과 회견하고 그 들의 질문에 '부장간첩'인답의 청와대용승적, 차대동행을 암살할부담도 '남하했다'고 거짓말을 말했다.

부장간첩 김신조는 평壤을 습격하기 위해 黃海道延山에서 24일(음력) 특수훈련을 받았고 남하직전에는 靑瓦臺호텔을 15일(음력) 15일(음력) 신지향으로 갔다. 사신용복을 받았다.

로했다. 또한 그 용어를 작오하 고남하였고 지공의 심정은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 하나 남파되어 체포된것을 후회하지않다고 태연하게 대답했는데 기자들의의문답은 다음과 같다.

▲問 2주 소와 계급 가족은?
▲答 2주 소는 咸北清津市 56·최조광장(노동자) 소위, 고향은 아버지 김인준(56)과 누이동생 셋이 있다.

▲問 2주 소의 복합을 출발 했나?
▲答 2주 소는 16월 10시 2시 때 연리초소(北傀秘密聯絡所)를 떠나서 밤 12시 開城에 도착 17일 밤 10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問 2주 소에서의 침입부 의과 휴전선방책을 어떻게 했나?
▲答 2주 소는 2사단지역으로 들어와 가위로 방책용자로 開津江은 얼음이어서 그 대로 넘어왔다.

▲問 2주 소에서 누구를 만 족나?
▲答 19일 밤 坡州군법원 리산에서 나무우물만나. 그 물단지 밑그랑을 무려 위 이었기에 첫날만 그렇게 견 회는 일이다.

▲問 2주 소 서울까지 침입했나?
▲答 2주 소는 坡州를 떠나 서울북쪽 앵무봉-노고산-비봉을 거쳐 세검정으로 들 어왔다. 20일 밤은 비산(碑峰)에서 잤다.

▲問 2주 소까지 오는 동안 경제만을 어떻게 돌파했나?
▲答 2주 소는 나무우물만나 지않았 다. 서울까지 아무런장악도 받지않고 들어왔다.

▲問 2주 소의 지령은 한 시간에 10킬로 걸으라는 것 이었다.

▲問 2주 소에서 무슨 일을 성 공했는지로 믿었나?
▲答 2주 소는 패하리란 생각은 없었다.

▲問 2주 소의 작오는?
▲答 2주 소는 작오하고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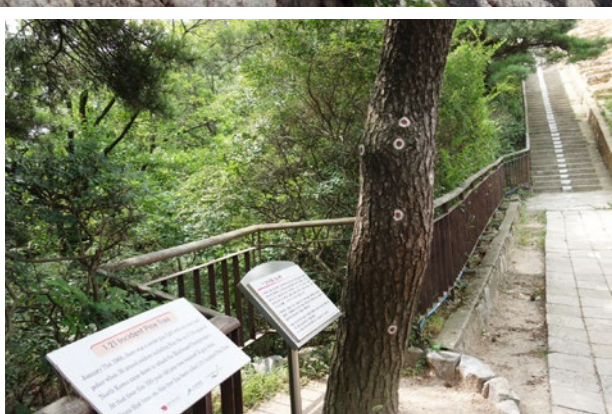
▲問 2주 소의 심정은?
▲答 2주 소는 패하리란 생각하 지않고 미안하나 후

▲問 2주 소 서울에서 무슨 지령 을 받았나?
▲答 2주 소는 평壤을 습격, 차 대동행의 X용복고 그림의 간부들을 죽일 목적이었다.

▲問 2주 소에서 임의 성 공한것으로 믿었나?
▲答 2주 소는 패하리란 생각은 없었다.

▲問 2주 소의 작오는?
▲答 2주 소는 패하리란 생각은 없었다.

▲問 2주 소의 심정은?
▲答 2주 소는 패하리란 생각하 지않고 미안하나 후



격동의 현대사와 서울성곽 백악구간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군부대 김신조 등 31명은 청와대에 침투하여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청운동으로 진입하려 저지당한 이들은 이쪽으로 도주하여 우리 군경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31명 중 1명이 도주하고 29명이 사살되었으며 1명이 생포되었으니 그가 바로 김신조이다.(일설에는 33명이라고도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향토예비군과 육군3사관학교이 창설되었고 일반 학교에서 교련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영화 '실미도'로 재구성된 684부대가 이 사건을 계기로 창설되어 북한에 대한 보복성 공격을 계획하였으나 끝내 무산되었다.

당시 김신조 기자회견 보도기사
1968년 1월 23일 매일경제신문 제569호 3면 5단에 난 기사 「大統領暗殺목적-앵무峰·碑峰거처 洗劍亭에」이다. 문답 중 침투목적에 관하여 답하는 대목에서 '대통령의 X를 떼고 그 밑의 간부들을 죽일 목적이었다.' 라고 하여 '목'을 X로 표현한 부분이 눈에 띈다.

瞻彼北郊如砥 春來草茂泉甘
萬馬雲屯鵠厲 牧人隨意西南

평평한 북녘 들을 바라보니

봄이 와 풀들은 무성하고 샘은 달기도 하네

수많은 말들은 구름처럼 모여 즐겁게 뛰놀고

목동들은 편한대로 여기저기 서성이네

鄭道傳 「進新都八京詩」中

인근의 가볼만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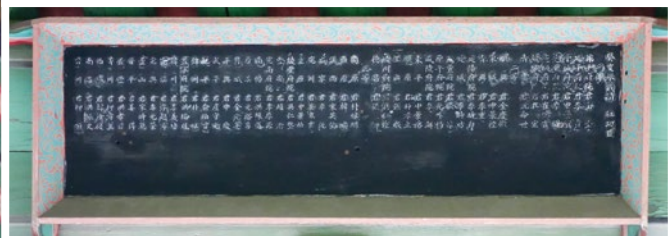
백사실계곡白沙室溪谷은 이곳에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별저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뛰어난 경치와 함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도롱뇽이 산다고 하여 유명해졌지만 탐방객의 증가와 가뭄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세검정洗劍亭은 인조반정의 주역들이 이곳에서 광해군의 폐위를 논의하고 칼을 씻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서울의 방위를 맡았던 총융청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군사들이 쉬는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영조 23년(1747)에 지어졌던 것이 1941년 화재로 타면서 1977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된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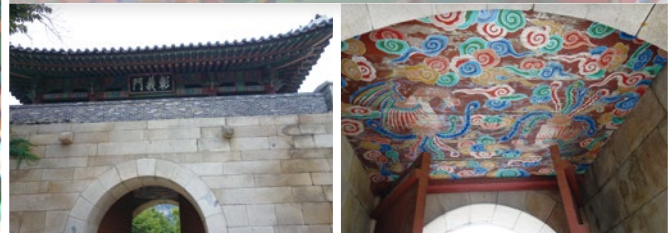


백악(白岳)에서 바라본 부암동 너머



창의문과 인조반정

창의문彰義門은 사소문 중 하나로 서대문인 돈의문과 북대문인 숙정문 사이에 난 작은 문이다. 태조 5년(1396)에 건립되었으나 태종 16년(1416)에 신하들의 건의로 폐문되었다가 중종 1년(1506)에 박원종 등의 건의로 통행이 재개되었다고 한다. 이후 광해군 15년(1623)에는 창의문 밖에 집결하고 있던 반정군이 이곳의 빗장을 부수고 들어와 순식간에 창경궁까지 진출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창의문에 달려 있는 현판은 이때 공을 세운 분충찬모람기명륜정사공신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의 명단이다.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로부터 시작하여 진천군에 봉해진 유구에 이르기까지 47명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 공신에 올랐던 이들은 53명이었다. 인조 반정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논공행상 문제와 역모 등의 이유로 김자점, 이홍립, 이괄, 심기성이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현판에서 이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창의문 너머의 명소들



부암동 付岩洞은 부암동은 부침바위라는 자연 석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암동의 유래가 된 부침바위는 도로확장으로 없어서 지명만이 전하고 있다. 인왕산 동쪽 기슭에 있으며 삼청동, 홍제동, 청운동, 평창동과 접해 있다. 조선 초기에 안평대군이 이곳에 정자를 짓고 무계동武溪洞이라 불렀고 정자를 지어 무계정사라 불렀다. 오늘날에는 무계정사 터에 오진암이라고 하는 1910년대 상업용 도시한옥의 자재를 이용하여 무계원武溪院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무계원은 종로문화재단의 관리 하에 종합문화예술공연장으로 새롭게 복원 및 단장하여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사진 참조) 한편 부암동에는 흥선대원군의 별장이었던 석파정이 있다. 인근에는 탕춘대성의 관문인 홍지문이 오늘날 상명대학교가 위치한 홍지동에 있다. 탕춘대성은 조선 숙종 45년(1718)에 지어졌는데 세검정 동쪽의 산봉우리의 이름인 탕춘대蕩春臺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홍지문과 탕춘대성은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고자 축조되었다. 이곳 인근에는 ○○동 천洞이라는 이름의 글씨가 곳곳의 바위에 새겨져 있다. 청계동천靑溪洞天, 백석동천白石洞天이 대표적인데 푸른 시내나 하얀 돌로 비유되는 절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경복궁 景福宮은 조선의 정궁으로 태조 3년(1394)에 신도궁궐조성도감의 감독 하에 조성되었다. 경복궁은 처음부터 현재의 규모를 갖추지는 않았고 태조 때부터 세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확장되었다. 그러다 임진왜란을 맞아 대부분이 소실되고 난 뒤 복원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조선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경복궁의 터가 길하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에 부딪혀 지속적으로 좌절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소실된 지 270여 년만인 1867년에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칸수로는 태조 때보다 20배의 규모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얼마 뒤 이곳에서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환궁 27년만에 경복궁은 다시 빈 궁궐이 되고 말았다. 경술국치가 있을 후에는 일제에 의해 4000여칸의 건물이 헐려 민간에 매각되었고 1917년 창덕궁 화재에 따른 복원 자재를 이곳의 전각들을 헐어 충당하였다. 그렇게 하여 경복궁 안에는 근정전, 사정전, 수정전, 천추전, 집옥재, 경회루 등과 몇 개 문만 남게 되었고 랜드마크인 광화문 역시 건준문 북쪽으로 옮겨 가게 되면서 본래의 기능과 모습을 대부분 상실하였다. 광복 후 이곳의 복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1년이였다. 이때부터 20년에 걸친 5단계 복원사업이 진행되어 현재 많은 건물들이 복원되었으나 아직까지 본래의 모습을 찾지는 못한 실정이다.



집옥재 集玉齋는 고종때 세워진 중국풍 건물로 선대의 어진과 외국사신을 접견할 때 이용되었다. 현판은 북송 때 미불米芾(1051-1107)의 글씨를 집자하였다.



황학정 黃鶴亭은 광무 2년(1898)에 경희궁 회상전 북쪽 담장 가까이 세운 활쏘기 연습장이었다. 1922년에 일제가 경성중학교를 짓기 위해 경희궁을 헐면서 일반에 불하되었는데 황학정 역시 불하되어 옛 서촌 5대 활쏘기 장 중 하나였던 등과정雋科亭 터에 이간되어 오늘날까지 국궁 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의동 백송은 인근에 영조英祖의 잠저였던 창의궁이 있었으므로 창의궁 백송이라고도 불린다. 창의궁은 영조가 즉위하기 전 연잉궁 시절 살았던 곳이고 이웃인 이곳에는 영조의 딸 화순옹주의 월성위궁月城慰宮이 있었다. 이곳에는 화순옹주의 증손자인 추사 김정희가 살았는데 인근의 수성동 계곡에 놀러가 남긴 시가 오늘날까지 전한다. 본래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태풍으로 고사한 뒤 지정해제되었다.



통인시장은 통인동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최근 '엽전 도시락'으로 명소가 되었다. 통인시장의 역사는 1941년 6월 효자동 인근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해 설립된 공설시장으로 출발한다. 한국전쟁 이후 서촌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자 공설시장 주변으로 노점과 상점이 형성되면서 규모가 확대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해공 신익희 고택은 효자동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해공 신익희의 고택이다. 1925년에 지어진 건물로 신익희는 한 독지가의 회사로 1954년 8월부터 1956년 5월까지 이곳에 거주하였다.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한성외국어학교 영어과를 졸업해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한 뒤 귀국 후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안내사항

식사장소
은혜식당(02-3217-4179)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185-10번지

인근 지하철
하림각(01-136) 버스정류장에서
7018, 7016, 1711, 7212, 1020 탑승 후
경복궁역 정류장 하차



주최

주관

제 2 회

儒學大學

순성놀이